

바뀌는 장례문화에... 화장장·봉안당 '포화상태'

매장 옛말, 광주·전남 화장률 89% 영락공원 화장로 11개 확충에도 갈수록 수요 늘어나며 대기까지 1추모관 이어 2추모관도 곧 포화 광주시, 효령동에 추가 신설 나서

광주시 북구에 거주하는 채모씨는 최근 선산에 모셨던 할아버지를 망월묘역으로 이장했다. 점차 선산 관리가 힘들어 지고 추후 후손들의 관리까지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처음에는 선뜻 동의하지 않았던 채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제는 "할머니도 같이 옮겼으면 한다"고 당부한다. 채씨는 "연로한 부모님이 선산을 방문하고 관리하기 힘들어지자 이장을 결정했다"며 "조부 세대부터 손자 세대까지도 한 데 묻힐 수 있고 관리가 쉽다는 점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에서 장례 문화 인식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에 따라 화장시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에는 유교사상이 팽배해 매장을 선호했지만 점차 화장을 선택하는 지역민이 많아지면서 광주·전남 지자체에게 화장장과 봉안당 등 화장시설 확충이 현안이 됐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사망자 10명 중 9명 정도가 화장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87.3%(사망자 2만5221명 중 2만2022명 화장)였던 광주·전남 화장률이 지난 2021년 0.5%p 증가해 88.7%(사망자 2만5549명 중 2만2683명 화장)에 달했다. 광주의 경우 광주시 도시공사 영락공원이 공공 화장시설을 담당하고 있다. 광주 영락공원은 지난 2000년 개원해 현재 11개의 화장로와 2개의 추모관이 있다. 그외에도 매장묘지와 자연장묘역 등을 갖추고 있다. 매장묘지는 1만 4926기로 이미 만장이다. 추모관은 1·2추모관과 봉안당이 있다. 1추모관(1만 5050기)과 봉안당(245기)이 가득참에 따라 광주

시는 4만5000여기를 수용할 수 있는 2추모관을 조성했다. 현재 2추모관은 전체의 10분의 1가량 정도인 4824기(개인단 4255기·부부단 569기)가 비어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추세로는 1년 6개월 후에는 2추모관도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달 평균 300여명이 추모관에 안치되는 반면 반출은 40기에 그치기 때문이다. 광주시 북구 수곡동에 있는 망월묘지공원에서도 지난 2012년부터 개장묘지를 가득 봉안묘로 4구용, 8구용 등의 방식으로 재활용하고 있지만 1만 637기 중 3250기는 미조성됐고 6370기 봉안된 상태로 1017기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광주시에서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설 봉안당인 새로나추모관 역시 2만4500기의 허가를 받아 10여년간 운영하고 있지만 일명 '로열석'은 포화상태다. 로열석은 성인 눈 높이에 있는 공간이다. 새로나추모관 관계자는 "봉안당이 가득 찰 때마다 뒷층에 새로 공간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공간 부족 현상이 찾아오는 주기가 빨라지고 있고, 9단 중 4·7단에 해당하는 로열석은 지금

도 부족해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장묘문화가 매장 방식에서 토지매입, 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화장률이 증가하고 가족묘가 유행함에 화장시설의 공간도 부족해지고 있다. 화장률이 증가하면서 봉안당 뿐만 아니라 화장로도 증설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0년 영락공원이 지어졌을 당시 3기에 불과했던 화장로가 꾸준히 증설(2000년 2개, 2001년 2개, 2006년 1개, 2007년 1개, 2017년 2개)됐다. 그럼에도 워낙 화장시설 수요가 많아 화장 예약을 미리하지 않으면 발인을 1~2일까지 대기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코로나시기 화장을 하지 못해 유족들은 4일장과 5일장까지 치르면서 대기하는 현상이 드물지 않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26년까지 광주시 북구 효령동 일대에 영락공원 3봉안당(4만 5000기)과 화장로 6기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추가로 최근 자연장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2만 5000기 규모의 자연장지도 신설할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9억 새꼬막종자 살포 사업 입찰 담합 유통업자들 적발 서해해경청, 4명 불구속 입건

경기도 화성시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발주한 9억원 가량의 새꼬막종자 살포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수산물 유통업자들이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5일 수산물 유통업자 4명을 입찰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 8억 7500만원(지방보조금 20% 포함) 상당의 새꼬막종자 살포사업 입찰에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A씨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꾸민 입찰 서류를 제출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A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 입찰 의사가 없는 2개 업체를 끼워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의 추가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수백억대 불법도박 수익금 세탁 일당 검거

110여개 대포통장 이용...광주경찰청, 조폭 등 62명 조사

110여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수백억원대 불법도박 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10월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받은 360억원을 관리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조직폭력배 등 6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총책 및 모집책 역할을 맡은 20대 초중반 조직폭력배 12명을 범죄단체 조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50명은 대포통장을 제공 및 관리하며 자금 세탁을 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들은 통장 및 계좌 116개, 휴대전화 97개 등을 이용해 계좌 이체를 반복해 자금 출처를 모호하게 만드는 이른바 '롤링'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체 금액의 1~3%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5억원 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총책, 모집책, 계좌이체 담당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자금 세탁을 맡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도라산역에서 외치는 평화 5일 파주시 도라산역에서 '2023년 하반기 제2차 광주 남구 통일효도열차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배달도시락 집단식중독 피해자 400명 넘어서

광주·곡성 등 472명 신고

광주시 광산구의 한 배달도시락 업체의 음식을 먹은 집단식중독 피해자가 400명을 넘어서다. 5일 광주시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 소재 A업체에서 만들어진 배달도시락을 이용한 손님 중 식중독 유증상을 신고한 이들은 472명에 달한다. 지난달 26일 곡성군 소재 9개 기업 노동자(142명)들이 이 업체의 도시락을 먹고 구토와 설사, 발열 등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인 이후 식중독 신고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 업체의 도시락을 이용한 이들은 광주와 장

성, 함평 등 8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는 환자는 광산구 120명, 북구 63명, 곡성 142명, 함평 85명, 장성 58명, 담양 4명으로 집계됐다. 광산구 보건소는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이 업체에 대한 검체 채취를 맡겨 현재 정밀 분석 중에 있다. 한편 이 업체는 광산구청이 지난달 27일 실시한 식품위생점검에서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영업장 무단확장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시 66년 이상 도로로 사용했어도 소유주에 돌려줘야"

광주지법 "사용료도 지급하라"

66년 이상 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도 소유주의 이익이 없다면 사용수익권은 토지소유주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5단독(판사 이재승)은 A업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또 '광주시는 A업체에게 1130여만원을 지급하

고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업체는 1936년 광주시 동구의 83㎡의 토지를 사들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토지는 1956년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됐다. 광주시는 1976년경부터 해당 토지를 도로로 이용했고 지난 2000년 이전 도로포장을 하며 관리해 왔다. A업체는 '광주시에게 토지를 인도하고 그동안 사

용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이 토지는 1956년부터 66년 이상 도로로 이용해 A업체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더라도 A업체의 손실이 없고 이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도로로 제공하거나 이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비용보다 이로 인해 얻는 이익이 더 큰 경우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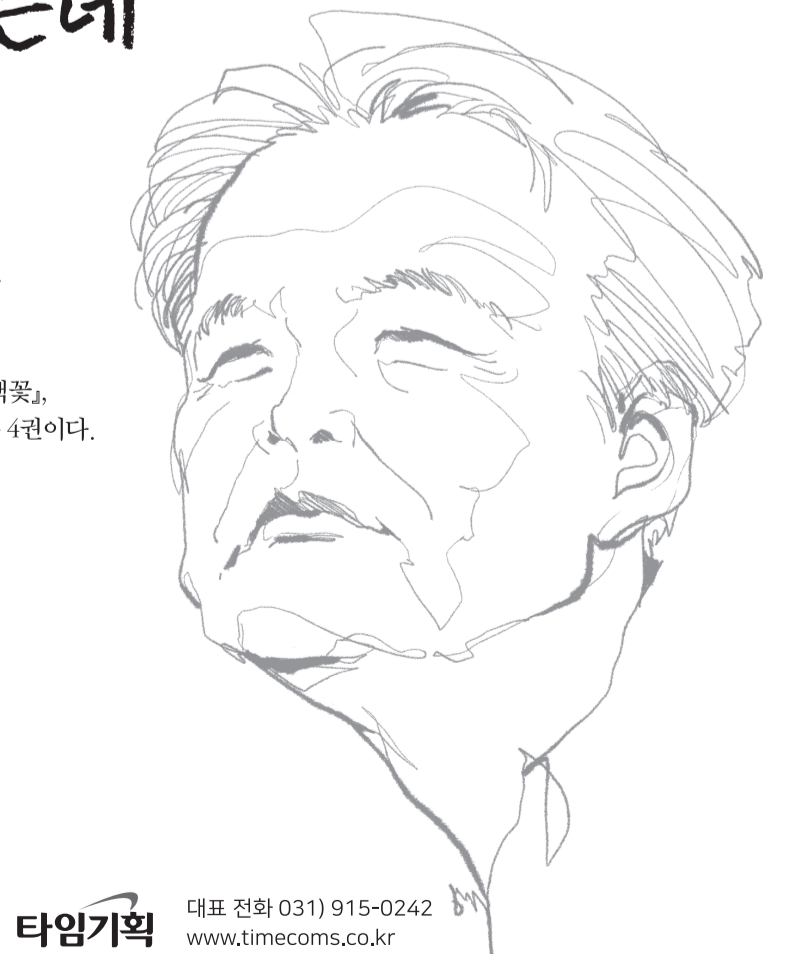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둥근해를 굴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돼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장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둥근해를 굴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